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6. 7. 24.(금) **즉시보도**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회의 개최

-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따라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야외활동 자제 등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24일(금)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따라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14시 기준, 포항 등 경북 지역의 기온이 39℃ 기록하고 25일부터 26일까지 38℃ 이상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와 경주시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별 폭염 대책이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포항과 경주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하여 폭염 대책 추진상황과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서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고령층·농업인·야외노동자 등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를 안내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어서, 국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을 연장 운영하고,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하여 무더위쉼터로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폭염 중대경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은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고, 국민들께서도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담당자	사무관	장현준 (044-205-6366)

